

21세기 인류문명 비전 제시

불교 국제학술대회 연다

동국대 개교 90돌기념 내년 10월 24~26일

불교적 관점에서 21세기 인류 문명의 비전을 제시하는 대규모 학술회의가 내년 10월 24일~26일까지 국내에서 열린다. 종립동국대학교(총장 송석구)가 개교 90주년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이 학술회의의 주제는 「21세기 문명과 불교」, 국내 학자 10명과 해외 학자 10명등 20명의 석학들이 주제발표를 하게 될 이 학술회의는 △21세기 문명의 불교적 조명 △종교 다원화와 불교 △사회 윤리와 불교 △한국의 세계화 등 다섯개의 분과와 각 분과별 두 개씩의 소주제로 나뉘어 진행된다. 각 분과의 소주제는 통일 주

위원장으로서 하는 집행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실무를 담당할 사무국(간사 김효표)도 불교문화 연구원 내에 설치해 해외학자 교섭 등을 서두르고 있다. 사무국에 따르면 이 학술회의에 참가할 해외 학자는 미국 5명, 일본 3명, 중국 1명, 스리랑카 1명 등이다. 아직 국내와 일본 학자 중 스리랑카 학자는 선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미국측 참가자들에게는 초청장을 발송했다. 선정된 미국측 학자는 해럴드 스위들러(템플대) 로버트 켈만(콜롬비아대) 칼루파나(하와이대) 로버트 버스(캘리포니아대) 박성배(뉴욕주립대) 교수 등으로 알려졌다.



인사이드 / 연변대발해연구소장 방학봉 교수

“발해불교 연구에 교계 관심을”

불교유물등 방치... 박물관 건립 시급

“발해의 제3대 문왕 대흥무가 자신의 존호를 ‘대흥보력효감공륜성법대왕’이라 칭할 만큼 불교문화는 발해문화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방치되고 있는 불교유물을 포함한 발해유물·유적의 복원과 보존을 위해 발해유물보관소 건립이 시급합니다.”

오는 9월 4일 오후 7시 조계사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정토회국제사업부 주최 ‘발해사 학술강연’과 신라·백제 불교 유적 답사를 위해 지난 19일 내한한 중국 연변대 발해사연구소장 방학봉교수(65세)는 발해사 연구에 불교계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93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주최 ‘발해사 국제학술토론회’ 참석에 이어 두번째 내한한 방학봉 교수는 김립성 화평원 출생으로 중국조선족 사학계 상임이사장을 역임하면서 『발해사연구』(동북민족관계사) 『발해문화연구』(발해유적과 그에 관한 연구)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내놓은 발해사 연구의 권위자다.

방학봉 교수는 이번 초청 강연에서 발해사 연구의 맞가지 문제로서 발해의 첫 수도 문제, 발해의 강역, 발해의 성격성 복원문제와 최근의 발굴 성과, 앞으로의 연구방향 등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30여년간 발해 역사의 현장 구석구석을 누비며 연구와 집필을 계속해 온 그는 “발해 불교와 한반도 불교의 발전과정을 연구하는 것이 자신의 남은 과제”라고 밝혔다. (재)

고고학 연구의 기초자료

한중일 논저 7천여편 수록 '한국고고학문헌 목록' 나와

지난 75년 국립중앙박물관에 의해 발간된 『한국고고학문헌 목록』(한국고고학사 연구논문지목록) 이후 시도된 가장 완성도 높은 한국 고고학관계 종합목록인 『한국고고학문헌 목록』(학원문화사)가 나왔다.



백66편의 방대한 논저들이 수록되었다.

책의 구성도 고고학총론, 선사시대, 원삼국시대, 삼국시대 유적과 유물로 구분하여 연구자의 편의를 도모했으며 논저목록

편자이던 이현재씨(경기도 향토사료실)가 김병모교수(한양대 박물관장)의 지도하에 완성한 이 목록집에는 한국 5천8편, 북한 5백2편, 일본·중국 1천8백67편, 구미제국 3백 86편 등 무려 2천 6백25편이 집필한 총 7천7

백66편의 방대한 논저들이 수록되었다. 책의 구성도 고고학총론, 선사시대, 원삼국시대, 삼국시대 유적과 유물로 구분하여 연구자의 편의를 도모했으며 논저목록 편자이던 이현재씨(경기도 향토사료실)가 김병모교수(한양대 박물관장)의 지도하에 완성한 이 목록집에는 한국 5천8편, 북한 5백2편, 일본·중국 1천8백67편, 구미제국 3백 86편 등 무려 2천 6백25편이 집필한 총 7천7

만해상상·선시등 조영 만해학보 2집 발간

지난 92년 결성된 만해학회(회장 한계진 서울대교수)가 광복 50주년을 맞아 만해소년의 문학·불교·선시를 조영한 논문 7편과 스님의 일화등 실천적인 글 4편을 실은 『만해학보』 제2집을 발간했다.

이번 논집에는 20세기 한국 불교의 양태 지주로서 만해·성철스님을 설정, 이 두분위상을 비교하면서 새로운 불교이념을 모색한 허우성교수(경희대)의 논문 ‘만해와 성철을 넘어서’와 건봉사 불명화교 학승이었던 설산스님의 만해스님에 대한 일화를 담은 글 ‘만해선사의 오도송과 일화’가 눈길을 끈다.

점안식때 신도참석을 왜 막는지

어느 사찰에서 부처님 점안식을 한다기에 새벽부터 서둘러 예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점안할 시간이 되니까 스님께서 신도들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때 바로 여쭈어 보질 못해 지금도 궁금합니다. (박철희·서울 양천구 목동)

부처님 경전의 1차 결집 때 가섭존자가 아난존자를 내쫓은 것과 같습니다.

근본도리를 모르는 사람은 쉽게 말해 한마음이 안되니까 때문이죠. 부처님 점안식 때 일반 신도들이 참석하면 의식의 진행과정에 대해 나름대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비유컨대 금을 정련하는데 다른 광물이 섞여서 순알해지기 어려운 것과 같겠지요. 한 생각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스님들끼리만 점안식을 올린 것입니다.

한사람이 세상을 구하는 도리는

경전 이름은 잊었습니다만 '한 사람만 깨달아도 능히 세상을 구할 수 있다'라

지상삼담 길은 묻는 이에 게 (A small graphic with text)

는 구절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의심이 가는데요. (최희용·광주 광신구 북동동)

어떤 분이 감잡한 어둠 속에서 밝은 등불을 켜고 길을 간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 불빛을 따라 가게지요.

한 조직사회의 우두머리가 마음도리를 알아서 조직원의 마음에 한마음으로 같이 해주면 다 같이 사는 이치가 있겠지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일테지요. 밝은 등불 켜들어 사방이 다 밝아지는 도리일 것입니다. 서로서로가 다 가설이 되어 있으니 정말로 깨우친 사람이 있어 번쩍 불을 밝히면 전체에 불이 켜질 수 있습니다.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한 손가락으로 건지는 도리가 있습니다.

공부하고 싶은데 잔병이 많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데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약한 체질이라서 잔병치레가 많습니다. 스님, 용기를 주십시오. (익명의 학생·동국대 불교학과)

누가 용기를 주고 말고 하겠습니까? 진정으로 공부하려는 마음이라면 스스로 이미 용기를 낸 것 아닙니까?

몸이 자주 아프면 이루어도 짜증스럽고 마음도 약해지겠지요. 그럴수록 굳게 마음을 다져야 합니다.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은 나로 하여금 공부하라고 독려하는 책이므로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닦쳐오게 다 공부의 재료라고 생각하세요. 용맹정진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내게 닦쳐오게 이런저런 경계는 다 나의 발전을 돕는 지원병이요 원군입니다. 그런 생각에서 풀려서 말고 밀고 나가길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몸 아픈 것도 다 내 공부를 돕기위해 참나의 자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형성시킨 내 몸뚱이 내가 끌고 다니는 것, 건강하게 끌고 다니든지 말든지 내 마음대로 하라' 하고 참나, 주인공에 맡겨놓고 믿음으로 믿고 나가보세요.

그리고 이 공부란 정말이지 역대 조사들과 부처님이 인도하신 길입니다. 진짜로 믿고 따르면 내가 겪는 세상살이가 다 편안대장 경인들을 조금씩 실감할 것입니다. 용기 잃지 말고 열심히, 처음 먹은 마음 변치 말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깨달은 뒤엔 보임을 해야 하나요

깨달고 난 뒤에는 다시 깨달을 것이 없다, 깨달고 나니 한 물건도 없는데 어찌 무엇이 있으랴 하니 그런 말들과 깨달고 난 뒤에도 보임을 잘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

독자문의와 발송합니다. 불발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신·팩스로 보내주시고요.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삼담은 조계종 한마음신문 대담스님께 문과 답을 통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자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쓰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이에게 큰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르침 바랍니다. (김선화·대전 서구 월평동)

깨달고 나서 보임을 잘해야 한다는 것도 맞고 깨달고 나면 아무 건너지가 없다는 말씀도 맞습니다.

깨달음이란 자성의 부와 자성의 자가 딱 상봉하여 결합하는 것입니다. 참나를 발견했다, 견성했다 하는 말이지요. 그런데 부지가 결합이 됐다 하는 것은 첫째 일체의 내 경계가 바로 거그러 나온 줄을, 거그러 드는 줄을 알았다는 것이고 둘째 나와 너, 주객이 둘이 아닌 도리를 알았다는 것이고 셋째 일체만법의 나투는 도리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합쳐 지기는 합쳐졌는데 씩이 낳은번 다 자라게 아니라면, 즉 일체 경계가 나 내 탓인줄 투철히 알아 행 속에서 여여하지 않다면, 또는 돌 아닌 돌, 만법이 나투는 도리를 여실히 꿰뚫어 보지 못한 바가 아직도 있다면 더 닦을 바가 있다고 하겠지요. 그걸 보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조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성이 본래 청정하고, 본래 여여하고, 할나할나 만법이 들고나며 자유자재한 줄 알았다면 돈오돈수라 해도 맞겠지요. 공부하는 이에게 중요한 것은 돈오돈수가 맞다, 돈오점수가 맞다는 시비에 있지 않습니다. 이론이 아무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론이 깨닫게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일체를 항복받아 하나도 버릴게 없다면 도리가 나올 때까지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직지사

圓覺山中生一樹 (원각산중생일수) 開化天地未分前 (개화천지미분전) 非青非白亦非黑 (비청비백비흑) 不在春風不在天 (부재춘풍부재천)

三界猶如汲井輪 (삼계유여급정륜) 百千萬劫歷虛塵 (백만만겁역미진) 此身不向今生度 (차신불향금생도) 更待何生度此身 (경대하생도차신)

山堂靜夜坐無言 (산당정야좌무언) 寂寂寥寥本自然 (적적요요본자연) 何事西風動林野 (하사서풍동림야) 一聲寒雁唳天 (일성한안리장천)

自從今身至佛身 (자승금신지불신) 堅持戒律不毀犯 (견지계율불괴범) 唯願諸佛證明 (유원제불자증명) 畢竟身命終不退 (영신신명종불퇴)

한국 사찰의 주련



권영환 청풍료

원각산 속에 나무 한 그루 있어 천지창조 이전에 꽃이 피었다네 그 꽃은 푸르지도 희지도 검지도 않으며 불바람도 하늘도 간여할 수 없다네

깨달음과 중생구제의 서원 간절

마음의 때 씻겨지는 느낌

산당에 고요한 밤 묵묵히 앉았으니 적막하고 고요함 가득 본연의 세계이다. 무슨 일로 서풍은 건똥불어 나무 숲 흔들리고 장천에 거러기 거뜰거뜰이 무슨 소식인가

내 지금부터 성불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계를 범하지 않으오니 오직 원컨대 모든 부처님 증명하신 가운데 결코 이 목숨 다하도록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이 청풍료의 주련은 매우

서정적인듯 하지만 자신의

업장을 짓고 성불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력이 사무친 내용이다. 첫 연이 암시하는 절대절명의 진리의 세계 속에 공성에 성불하겠다는 비원이 바로 둘째 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세째 연의 수행과 깨달음의 순간에 대한 은유는 시 읽는 맛의 극치를 전해준다.

거기에 마지막 연에서의 불퇴전의 다짐이 이 청풍료에 배인 직지사의 수행가종을 대변하는듯 하다. 기승전결로 잘 짜여진 이 내용은 그 뜻을 풀이 아는 것만으로도 약해지겠지요. 그럴수록 굳게 마음을 다져야 합니다.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은 나로 하여금 공부하라고 독려하는 책이므로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관은 독자 여러분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에서 찾으십시오. 문의: (02)737-8881 (광고국) 팩스: (02)737-0697

활천당 한약방 (대구 약관음동 중안) 한약의 명소 40년 전통 간염 간경화증 상담 요함. 대구광역시 중구 남성로 86-1 (053-252-8274)

법화경 강좌 강사 최공덕 스님 문의전화 부산: 645-6224 대구: 952-8711

불교서적의 모든 것 불서 출판 운주사 ·종로구 청진동 6번지 ·TEL (02) 720-9372-3 ·FAX (02) 723-0646

신비의 신라범종 개발 창업 6년의 역으로 범종주조의 기술혁신을 선도해온 지희 성종사가 수년간 계속된 연구 끝에 드디어 새로운 음향과 아름다운 문양의 새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범종 제작 및 불상 조성 TAPE(비디오 테이프)를 원하시는 스님, 사무대중께서는 전화문의시 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02)733-6141 (서울사무소) (0331)283-2083 (경성)

일할 곳을 찾습니다. 불심이 강한 41세된 독신 남자로서, 12인승 승합차와 함께 사찰에서 운전 기사 겸 처사로 일할 곳을 원합니다. 연락처 (0339)375-2905

탈종공고 대한불교미타종 중정 법하 사찰명: 영산암 소재지: 충북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 49-2 전 화: 0443-46-8730 성 명: 조신용(무정) 본 사찰은 귀중단의 종지와 풍풍을 수행할 수 없어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1995. 8. 18 영산암 무정 합장

각종 염주 주문생산 전문 (사찰명, 사진 등 삽입 가능) 단주, 합장주, 목걸이, 팔찌, 차걸이, 주불, 열쇠고리 등 한남상사 Tel: (02)795-4083, Fax: (02)792-9659

승도인쇄 스티커 전문 불심과 공익정신으로 정성을 다해 제작합니다. 문의처: (02)273-1239 대표 이강화 합장

72세 할머니가 본 제도를 이용하여 2년 만에 중졸·고졸과정을 거뜰히 마쳤습니다. 문의처: (02)745-2511 395-9193 369-2560 (주인 직접 상담)

참불자, 도반을 모십니다 불교에 관계된 일이나, 포교당으로 쓰실 분에 한해 아래 건물을 임대해 드리겠습니다. 건물주소: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218-2호 대지 70평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 40평) (현대식 건물) 공간 사용은 사용자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 (02) 745-2511 395-9193 369-2560 (주인 직접 상담)

개인적 사정으로 학업의 기회를 놓치신 분을 위하여 학원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 졸업장을... 한글반 년2회실시 4월·8월 결성 국졸·중졸·고졸 회원모집중 ◎ 자신감을 갖고 집에서 공부하도록 합격의 길을 안내합니다. 국고 졸업과정 한글반·재수생·직장인·주부반 중학 졸업과정 ○ 정계 불어인 해설 '강의해설교재' ○ 학교수업실 '강의 녹음' 학습 고졸 졸업과정 ○ 최저한 1:1 '담당 관리제' 대학 졸업과정 ○ 한글 속성 1개월 쉽게 터득 가능. 문의처: (72세, 할머니) ·중·고과정 (24개월) 박순희(45세, 주부) ·중과정 (5개월) 이상수(39세, 직장인) ·중·고·대과정 (36개월) 문의처: (수신자 부담) 크로바서비스 080-023-4600